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조영식 / 주간 이서우 / 편집장 엄홍준 / 인쇄 인쇄수납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 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 2056, 2860 FAX(0331) 280-2238

제1014호 〈주간〉 1993년 2월 23일 (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1】

제41회 학위수여식 거행

오늘 노천극장서, 박사87·석사436명등 배출

본교 제 41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7백88명(서울캠퍼스 1천8백76명, 수원캠퍼스 1천9백12명), 박사 87명, 석사 4백36명이 배출된다.〈관련기사 3, 4, 5면〉

총장상은 이혜원(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양과 이규숭(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군이 수상하며, 학장상 수상자는 총 17명, 학과별 우등상 수상자는 총 51명이다.

학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리과대학=신혜영(물리), 법과대학=김경(법학), 정경대학=이문정(경영 야간), 사범대학=김희자(미술교육), 가정대학=김현정(식품영양), 의과대학=강진선(간호), 한의과대학=강윤희(한의), 치과대학=천훈(치의), 약학대학=김경화(약학), 음악대학=민경선(성악), 체육대학=김장호(체육), 외국어대학:김경태(일문), 사회과학대학: 강명미(행정), 자연과학대학: 손동훈(우주과학), 공과대학:정윤태(산업공학), 산업대학:함현숙(원예), 체육과학대:한승희(체육)

신용철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위수여식은 개식선언과 국민의례가 있은후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며 그 순서는 박사, 석사 학위수여, 특수대학원 수료자 수료증 수여, 학사학위수여가 있고 총장상, 학장상 수여, 총장 훈사,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조영식 총장은 오늘 훈시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들길 전 경희인의 마음으로 축한합니다"라고 격려한 뒤 "조국의 미래를 위해 힘껏 뛰어 경희의 이름을 빛낼 것"을 당부한다.

3개의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의·한·치대 총3백28명

지난달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자격 시험에 본교 응시생들이 전원 합격하였다.

의과대학은 지난 1월 13일 치뤄진 제56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자 1백20명 전원이 합격하여 100%의 합격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치뤄진 제46회 한의사 국가시험과 제45회 치과의사 국사시험에서도 본교 응시생 한의대 1백29명과 치대 79명이 모두 합격했다. 특히 의대와 치대는 이번 전원 합격으로 2년 연속 100%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한편 39명이 응시한 약사 국가시험과 32명이 응시한 간호사 국가시험 결과는 이달 말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 직종변경 철회 철야농성
감시·단속적 근로자동의서 거부

본교 노동조합 (이하 노조) 간부 10여명은 지난 18일 '관리직 근무형태 및 일반 직종변경 철회'를 위한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학교측이 통보해온 관리직 근무형태 변경(1일 3교대에서 전원 주간근무) 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동의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측은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직을 경비직과 청소관리직 업무로 분리하고 감시·단속적 업무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경비직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행정부서와 노동조합 등에 전달했으며 지난 22일부터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권영환 노조위원장은 "학교측이 요구하는 동의서는 법적으로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관리직 직종분리는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교내 장학금 20억7천여만원 책정
서울 10억7천·수원10억여원등

양캠퍼스 학생처는 9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급계획에 따르면 교내장학금 총액은 서울의 경우 10억7천여만원, 수원은 지난 학기에 비해 25%정도 증가한 10억여원이 잠정 책정되었다.

이러한 교내장학금은 각 단대의 인원비율과 등록금비율의 평균으로 각 단대별로 지급되며 지급내역은 오는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교내장학금의 단대별 분배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문리대 8천여만원, 법대 2천4백여만원, 정경대 8천8백여만원, 사범대 1천8백여만원, 가정대 2천2백여만원, 의과대 4천4백여만원, 치과대 2천8백여만원, 약대 8백여만원, 체대 2천1백여만원, 2부대 2천5백여만원

△수원:외국어대 12.6%, 자연과학대 13.7%, 사회과학대 15.9%, 공과대 34.3%, 산업대 13.5%, 체육과학대 10%

산디과, 교직과정 신설

수원캠퍼스 산업디자인과에 교직과목이 신설된다.

양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1월 교육부에 서울캠퍼스의 지리(야), 생물(야), 학과과와 수원캠퍼스의 러시아어어학과(야), 산업디자인학과, 사회학과에 대한 교직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산업디자인학과에만 교직과목 신설이 허용되었다.

26일 전체교수회의열려

정년퇴임식 및 전체교수회의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임상고원을 제외한 전체 전임교원이 참석하게 되는 이번 전체교수회의는 정년퇴임식 및 각 부처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성완(정외)교수별세

주성완(정경대 정외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4시 30분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64세)

발인은 12월 23일 서울캠퍼스 일간교실에서 정경대학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장지는 여주 남한강 공원묘지이다.

故주성완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56년 본교 정경대학 졸업(정치학사)

1958년 본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67년 미국 인디아나 대학 대학원

1962년 본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부임

1973년~1975년 경희여자 초급대학 학장

1981년~ 외무부 정책자문위원

신임 보직교수 14명 발령

서울 연구처 신설, 처장에 정복근(문리대·물리)교수

지난 5일 학·처장에 대한 보직명령들이 있었다.

보직명령 내용을 보면 서울캠퍼스에 연구처가 신설되어 정복근(문리대 물리학과)교수가 연구처장에 임명되었고, 서울캠퍼스 6개 단대와 부처, 수원캠퍼스 5개 단대와 부처장이 교체되었다.

신임 보직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개강호에 게재)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김수곤(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대학원장=김태영(문리대 사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전기호(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정보대학원장=김용래(행정대학원) 교수, 정경대학장=박명광(경제학과) 교수, 사범대학장=박재호(미술교육과) 교수, 의과대학장=장환일(의학과) 교수, 한의과대학장=김광호(한의학과) 교수, 공과대학장=전동훈(건축공학과) 교수, 산업대학장=김무성(농학과) 교수, 체육과학대학=장주호(체육학) 교수, 수원캠퍼스 학생처장=서의영(외국어대 중문과) 교수

한편 의료원장에는 주홍재(의과대학 의학과) 교수가 부속병원장에는 임언(의과대학 의학과)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한편, 국제평화연구소장에는 손재식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겸임되었다.

도서 3천여권 기증받아

중앙도서관은 방학중 총 3천7백39권의 장서를 기증받았다.

기증내용은 이정규(정경대, 경영학 교수가 전공관련 서적 2백25권, 장정옥(가정대, 식품영양학) 교수도 전공관련 서적 1천6백92권을 기증하였다.

특히, 故주상완 (정경대, 정치외교학) 교수 유족들이 전공관련 서적과 아프리카 관련서적 등 1천2백22권을 기증하였다.

러 극동대학등과 자매결연
대학원에 미 소수민족 장학생 입학도

본교는 방학중에 일본 후쿠리쿠대학 등 3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본교는 지난 1월15일 일본 후쿠리쿠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데 이어 1월24일에는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과, 1월 31에는 일본 게이요대학과 공과대학의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한 지난 2월21일 미국한인회 소수민족장학생 4명이 본교 대학원에 입학 했다.

소수민족장학생의 대학원입학은 한, 흑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사회내 한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국교위가 지난 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연구작업도 진행중이다.

등록금 평균 17%인상 일방고지

서울총학 설문등 진행, 납입연기 결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9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1차 등록 납부 연기를 결의하였다.

이에 앞서 학교 당국은 지난 9일 인문, 사회계열이 18%, 이학계열 16% 씩 각각 인상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각 계열별 인상된 등록금액은 다음과 같다.(2,3학년 기준)

△인문, 사회:1백12만5천8백50원

△이학, 체육: 1백32만8천1백50원

△공학, 예술: 1백54만9천5백50원

△약학: 1백54만9천5백50원

△의, 치, 한의: 1백69만8천2백원

이에 총학은 지난 15일 중앙운영위원회 비상회의를 갖고 학교측이 예년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9일 등록금을 일방고지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로 공고된 1차등록기간내의 납부 연기를 결의했다.

학교와 총학의 몇차례 면담끝에 학교측은 잠정 등록금 협상사항의한 내용인 93학년도 예산서를 내달 초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총학 산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경희의료원 사태와 교육재정확보투쟁 (이하 교재투)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지조사사업을 진행시켰다.

학자추 사무국장 윤종근(사학, 4)군은 학우들이 가장 심각히 여기는 교재투의 내용은 도서관문제와 취업문제라고 분석하고 학내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문 3명 신춘문예 당선

각 일간지의 신춘문예에 본교 동문 3명이 각각 당선됐다.

문흥술(78학번) 동문은 조선일보에 평론 "인간주체의 와해와 새로운 글쓰기-최수철의 '고래뱃속'에서와 '알몸과 육성'"으로 당선했으며 김용식(79학번) 동문도 평론 "김혜순 시의 율화적 구조와 현실 비판"으로 세계일보 평론부분에 당선됐다.

또한 배정원(85학번) 동문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에 "그리운 약국"으로 당선했다.

수원, 자동교환방식 도입

지난 8일부터, 다량통화 동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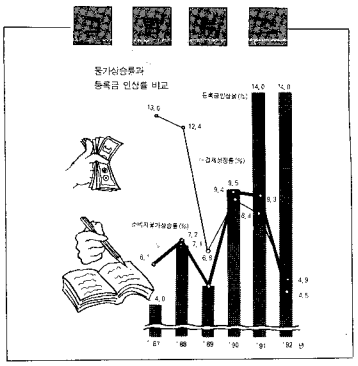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지난 8일부터 기존 수동 교환방식에서 전자식 교환방식을 도입 운영하고있다.

이로써 수원 직통전화 사용시 통화량의 과다로 인한 통화대기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다.

새로 운영되는 교환방식은 수원캠퍼스 대표전화 (02) 741- 5701~2로 전화한후 했당 구내번호를 누르면 되고 수원지역 전화인 경우 280국에 해당 구내번호를 누르면 된다.

또한 통화량이 많은 교내 부서에는 총무과 1번, 관리과 2번, 교무과 3번, 학역과 4번, 학생과 5번, 경리과 6번, 전자계산소 7번 등 각각 한자리수의 단축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다.

구내전화 문의는 741-5701~2로 전화후 0번을 누르거나 4초이상 기다리면 교환원이 자동 연결되며, 수원전화는 280-2114번에서 서울의 경우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대의 마음 속에 회초리를 드립니다"

오늘, 등용문을 떠나는 그대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립니다.

너무도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회초리,
세상에 가득 깔린 놀이에 탐닉하지 말라는 회초리,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에 큰 소리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회초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회초리,
진실과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는 회초리…

그대가 그렇게도 비난했던 선배세대들처럼
비겁하고 나약해질 때, 많이 많이 때리십시오.
그래서 벌겋게 부어오른 다리로라도
그대가 올곧게 설수만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주보사